

위성사진으로 본 北 로켓은 3단식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북한 미사일 발사장 발사대에 세워진 로켓의 모습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의 '과화국제안보연구소'는 30일 디지털글로브 위성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촬영한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의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나타난 로켓은 인공위성 또는 탄두가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 상단부분의 덮개가 벗겨진 상태로, 몸체 전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로켓의 길이는 32m, 직경 2.2m, 중량 70t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진 속의 로켓이 3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공개된 사진 상태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로켓의 모습이 3층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뤄 3단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도 미국의 싱크탱크인 '글로벌 시큐리티'를 인용해 "3단식으로 보인다"면서 "2006년 7월에 발사된 대포동 2호는 2단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은 추가로 개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은 1998년 8월에 3단 로켓을 이용해 대포동 1호(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면서 "이번에 발사되는 로켓도 3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될 로켓의 1단과 2단에서 독성이 매우 강한 질산계통의 산화제로 이뤄진 액체연료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업체 '디지털글로브'사가 3월 29일(왼쪽)과 3월 26일 촬영해 공개한 함경북도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대 모습(왼쪽). 3월 사이에 미사일 발사대 발사대에 3단의 가능하고 원통형 물질로 보이는 장거리 로켓의 모습이 드러났으나(왼쪽사진) 무엇이 탑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교도통신 "2단식 대포동 2호보다 개량된 것" 추정

덮개 벗겨내 발사 임박한 듯... 실제 구분은 어려워

마지막으로 연소하는 3단은 고체연료를 각각 사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나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연료 주입차량의 모습이 포착돼 대략 발사할

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료 파이프가 지하로 매설돼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 정 부 당국의 고민이다.

다만 정부당국은 현재 로켓 발사 작업의 진행 속도로 미뤄 발사장 상

공 날씨가 관측된다면 다음달 4일께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발사대에 장착할 땐 로켓 상단부분을 덮개로 가렸지만 지난 28일 이 덮개를 벗겨 낸 것은 발사가 임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상당국은 발사장 주변 날씨가 다음달 3일부터 흐려져 4일 오후에는 비나 눈이 오고, 5일에는 온풍이 짙은 구름이 끼고 6~10일은 대체로 맑다고 예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것(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그런(요격)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시 요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이 있다면" /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1명 억류 왜

체제 비난 이유... 北 "규정위반 조사중"

경고·추방 조치 가능성... 장기화 땀 파장 클 듯

북한이 30일 규정 위반 혐의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 직원이 북의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일부는 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조사한 사례는 이전에도 몇 건 있었다. 1999년 6월 20일 남측 관광객 민영미씨가 금강산 관광 도중 북측 환경관리원에게 귀순자의 생활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북측에 억류돼 조사를 받다 7세만인 같은달 25일 풀려난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계속 긴장상

태라는 점과 북측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 당국을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통지문을 공식적으로 보내온 점이 예상치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부는 북측이 이날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강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일단 억류상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런 만큼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에 걸릴 시간과 처분 결과에 따라 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률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돼 경고·범칙금 부과, 추방 등 조치에 그칠 경우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이 합의서가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현 상황에서 북이 우리 국민에 대해 강제 조사를 진행하는 데는 모종의 의도가 담겨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대북단체들에

'방북 자제' 권고

통일부가 방북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를 고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예정 기점으로 밝힌 내달 4일부터 방북을 자제해줄 것을 대북인도주의 지원단체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특히 방북 자제요청 기간을 북한이 로켓발사 예정기간이라고 밝힌 4~8일로 국한하지 않음으로써,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와 북한의 반발로 인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자제요청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코트디부아르 축구장 붕괴 19명 압사

사하라 코트디부아르의 수도 아비장에서 29일(현지시간) 코트디부아르와 말리위 간 2010년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전이 열린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 19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했다.

이날 사고는 아비장 메인스타디움에 입장하려는 관중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경기가 시작된 뒤 입장 이 허용된 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한 뒤 벽 일부

가 무너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보도했다. 또 부상자 중 일부는 중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날 축구장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르 드록바를 보기 위해 3만6천여명의 축구팬이 몰렸다고 BBC는 전했다.

드록바는 이날 사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말리위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 코트디부아르의 5-0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게이트 미국방 "北 로켓 요격 계획 없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게이트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갖추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게이트 장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로켓 발사 시 요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이 있다면" /연합뉴스

그것(요격)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그런(요격) 일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티머시 키팅 미 태평양군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시 요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미사일이 있다면" /연합뉴스

www.pms.co.kr
www.kimyoung.co.kr

PMS·김영면입학원

PMS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의약대 편입을 위한 최고의 선택!

= MEET/DEET/ PEET 전과목 개설 =

적중률로 주목받는 명강사 영감의 그대로, PMS 위성 LIVE강좌

학대편입의 열기! 6년제 학대로 이어진다

5회 MEET & DEET 적중률 80%, 합격생 10명중 7명이 PMS출신

2010학년도 편입대비

- ★ 기초부터 알기쉽게
-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 문법, 독해 어휘MTT(조별토론학습)
- ★ 전대편입특별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제5기 결산공고

(대 차 대 조 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유 동 자 산	1,042,253,617	I. 유 동 부 채	4,767,008,755
(1) 당 좌 자 산	1,042,253,617	1. 미 지 급	70,290,39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5,086,804	2. 예 수	267,371,590
2. 단기금융상품	293,749,502	3. 부 가 세 예 수	246,081,800
3. 시 수	552,933,140	4. 단 기 차 입	3,200,000,000
4. 선 급 비 용	85,828,671	5. 미 지 급 비 용	59,284,975
5. 선 급 법 인 세	4,655,500	6. 유 동성장기부채	925,000,000
II. 비 유 동 자 산	148,713,275,207	II. 비 유 동 부 채	110,077,111,120
(1) 유 형 자 산	392,485,329	1. 장 기 차 입	110,075,000,000
1. 기 계 장 처	60,424,545	2. 회 지 급 예 출 당 부 채	2,111,120
감가상각누계액	△22,161,169	부 채 총 계	114,844,119,875
2. 차 량 운 반 구	547,163,427	자 본	50,09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43,326,213	I. 자 본	50,091,000,000
3. 공 구 외 기 구	14,800,000	1. 보 통 주 자 본	50,09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812,397	II. 자 본 잉 여	△262,270,710
4. 비	130,289,453	1. 추 시 할 인 발 행 차 금	△262,270,710
감가상각누계액	△92,008,619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5. 시 설 장 치	209,000,000	V. 결 손 금	△14,917,320,341
감가상각누계액	△102,383,698	1. 미 처 리 결 손 금	△14,917,320,341
(2) 무 형 자 산	148,236,919,703	(당기순손실: 7,236,550,145원)	
1. 판 리 운 영 권	181,778,302,549	자 본 총 계	34,911,408,488
국 고 보 조 금	△33,568,257,165	자 본 외 자 본 총 계	148,755,528,824
2. 임 차 산 권	51,874,319		
(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3,870,175		
1. 보 증 금	83,870,175		
자 산 총 계	148,755,528,824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3월 31일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황 운 주**

감사의견: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5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성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남 용

침·뜸·경락 공개강좌

"알기쉬운 침구학세미나"

본강의 주요과목

전통침구학, 체질, 부항, 경혈, 경락, 이침, 비만침법, 미용침법, 중국수침,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 ★ 본강의: 매주 금요일 2시~5시(4개월)
- ★ 월회비: 90,000원(교재포함)
- ★ 추나침구사 등 중국지적증 취득기회
-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앙아시아 등 해외이민, 취업기회
- ★ 중국 요녕중의약대학 및 중의연구원 자격증 취득과정

☎ 1544-5359 / 062) 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www.damyang.co.kr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달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 알뜰상 210,000원



▶ 으뜸상 350,000원



▶ 소가족상 450,000원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달양한과

문의전화. 061-383-8283 직접배송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번지 대표이사 박 순 매